



HUNGERGAME

헝거게임조

고지연 박연수 이나영 최주란 하태준



INDEX

01. 헝거게임의 세계관
02. 소설의 줄거리
03. 소설에서 인상깊었던 장면
04. 영화에서 인상깊었던 장면
05. 영화와 소설의 차이점

HUNGERGAME

-01-

헝거게임의 세계관

-02-

소설의 줄거리

-03-

소설에서 인상깊은 장면

소설 『헝거게임』에서 인상깊은 장면과 그 이유

“그녀는 내 눈을 피한 채 살짝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곧 문 밖으로 나간다.

저녁 식사 때의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다. 하지만 내가 사과할 일은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문제라는 걸 나도 알고 있다. 숲에서 도와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게 부끄럽다는 것. 캐피톨이 그 남자아이를 죽이고, 그녀의 혀를 자르는데도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는 것.

마치 나 자신이 헝거게임을 시청하고 있는 것처럼.

구두를 벗어 차 던지고 옷을 입은 채 침대에 기어든다. 아직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. 어쩌면 저 아이는 나를 기억조차 못할지도 몰라. 하지만 난 알아, 재가 날 기억한다는 걸. 마지막 희망이었던 사람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법은 없어. 마치 이불이 말 못하는 빨강머리 여자아이에게서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듯, 나는 이불을 당겨 머리끝까지 덮는다. 하지만 그 아이의 눈은 이 모든 벽들과 문들과 이불을 꿰뚫고 나를 노려본다.

내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는 기뻐할까?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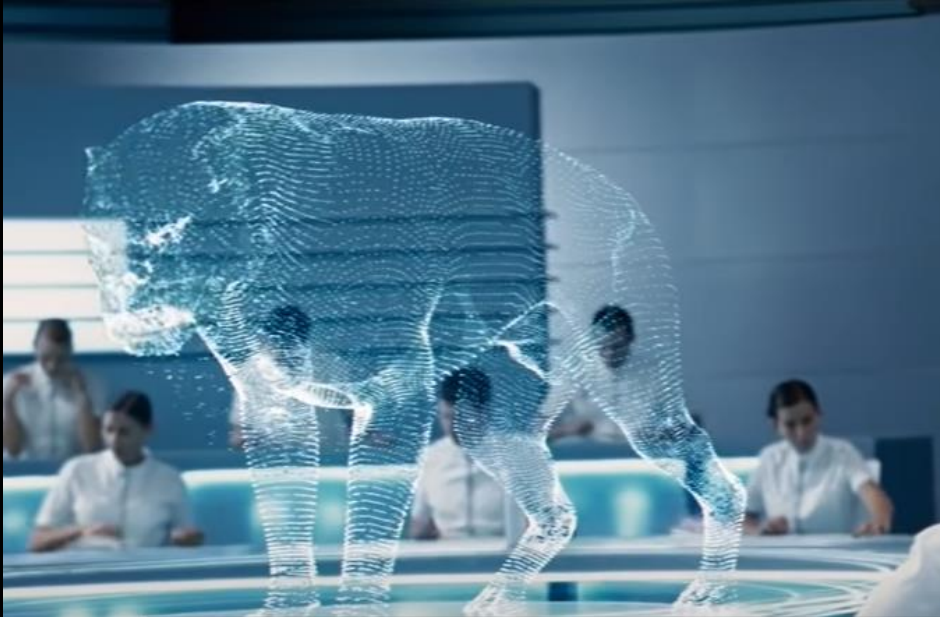
- <헝거게임 - 헝거게임 시리즈 01> (수잔 콜린스 지음, 이원열 옮김) 중에서 (6장)

자신 또한 캐피톨의 사상과 폭력에 동조하는 방관자가 되고 말았다는 자책감과 무력감

+

캐피톨의 폭력적인 억압 방식을 직접적으로 표현

소설 『헝거게임』에서 인상깊은 장면과 그 이유



“공중에 떠 있는 그 순간, 내가 머테이션들의 어떤 것을 보고 동요했는지 깨닫는다. 나를 향해 번득이는 그 녹색 눈은 개도 아니고 늑대도 아니고, 내가 본 어떤 갯과류 동물의 눈도 아니다. 분명히 인간의 눈이다. 그 사실을 깨닫기가 무섭게, 목걸이에 보석으로 1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것이 눈에 들어온다. 그러자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이 분명해진다. 금색 털, 녹색 눈, 숫자 1……. 글리머다.

(중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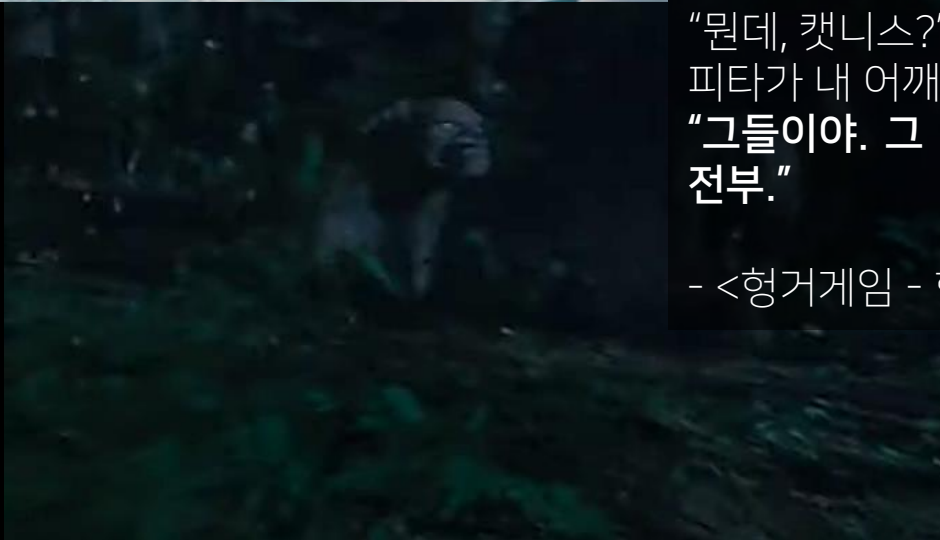
그중에서도 최악은 짙고 반들거리는 털에 커다란 갈색 눈을 한, 목꾼에 밀짚으로 11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몸집이 가장 작은 머테이션이다. 증오심에 이를 드러내고 있는 저 머테이션. 루…….

“원데, 캣니스?”

피타가 내 어깨를 흔든다.

“그들이야. 그 애들이 다 모여 있어. 다른 애들. 루하고 여우얼굴……, 다른 조공인들 전부.”

- <헝거게임 - 헝거게임 시리즈 01> (수잔 콜린스 지음, 이원열 옮김) 중에서 (25장)



-04-

영화에서 인상깊은 장면

-05-

영화와 소설의 차이점

영화와 소설의 차이점

1. 시점의 차이

소설: 주인공 캣니스의 시점

영화: 전지적 작가 시점 → 주인공 만이 아니라 다른 인물 사이의 대화나 상황을 직접 보여줌



2. 주인공의 성격 차이

소설: 자신이 놀잇감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루를 추모하기 위해 루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은 손모양을 함
→ 그러나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자각은 없다.

영화: 카메라를 향해 손을 들어 보이고, 그 결과 11구역에서 폭동이 일어남.
→ 헝거게임 밖의 사람들에게서 어떤 변화를 이끌려는 시도처럼 보임.



